

미국의 패권전략과 한국 군사전략 발전방향

김성우*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 IV. 한국 군사전략 방향
-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 차원에서 국가들의 ‘짜깁기’가 한창이다.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중남미국가연합(UNASUR) 등 같은 지역 끼리 뭉친다. 하지만 경제적인 공통분모가 있어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이루어진 브릭스(BRICs)¹⁾가 한 예다. 잠재적으로

* 영남이공대학 부사관과 교수

1) 브릭스(BRICs) 또는 브릭(BRIC)은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을 통칭하는 말로,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2년 상호 무역과 협력 조약을 맺었다. 브릭스는 선진국을 제외하면 국내총생산

미국의 단독 해게모니를 위협할 수 있는 브릭스는 기본적으로 반미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다.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브릭스는 ‘다극적 세계질서(multipolar world order)’의 추구를 선언했다. 미국의 ‘권위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²⁾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구조는 국가주권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체제였다. 이 시기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지속해 왔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영향으로 안보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전에서 탈냉전의 안정된 질서가 확립되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갑작스런 9·11 테러 발생 이후 전혀 새로운 위협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테러, 대량살상무기³⁾ 확산, 초국가적 위협 등이 역내 안보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미국은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외전략의 방향을 일방주의로 굳히게 되었다. 9·11 테러사건이 미국 내의 각종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냉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세계를 독자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와 범세계적인 반패권주의가 작용하여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무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지구의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신속한 전 세계 타격⁴⁾’프로

(GDP) 규모가 세계에서 1~4위이다. 세계인구의 40%,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2) 중앙일보, 2010년 4월 20일자

3)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4) Prompt Global Strike(PGS) : 미국이 유사시 대륙간 탄도탄을 이용하여 전세계

그램의 일환으로 목표물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미 공군은 다음 달 중 최초의 시험발사에 나설 예정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테러조직이나 적대국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어지 수단으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비핵무기 옵션은 대응속도가 늦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유한 크루즈 미사일은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최고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하 5~6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⁵⁾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하에서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⁶⁾

한국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무엇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이에 부합한 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군사전략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거시적인 국제정치 이론 틀인 패권안정이론에 입각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냉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패권 전략이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기운영체계이다. PGS는 Forward Deployed Forces 및 Air Expeditionary Forces(48시간 이내 전개), Carrier battle groups(96시간 이내 반응) 등의 부대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5) 중앙일보, 2010년 4월 10일자

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2004), pp.88-89.

한국의 안보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제시로 한정 하였다. 이처럼 탈냉전 이후 시기를 연구범위로 선정한 이유는 미국의 패권정책과 탈냉전 이후 진행된 동북아 안보환경 특징을 한반도 주변 안보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이 지향해야 할 안보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도출하는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불안정한 안보환경 하에서 보다 광범위하며, 세계적이며, 합리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패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 차원에서 패권의 지속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을 알아보고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전략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부분 문헌조사 분석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논문, 책자의 분석 등 질적인 문헌 분석방법으로 연구·분석하고자 했다. 참고자료는 정부간행물, 국내외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등은 물론 기타 정기간행물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패권의 개념

패권(Hegemony)의 사전적 의미는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

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패권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즉, 패권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를 이용하여 전쟁 등을 불사하고라도 자국의 외교목표를 성취하려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왔다.⁷⁾ 일반적으로 패권에 관한 견해는 크게 자원과 패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집약해볼 수 있다. 먼저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패권자원에 의존하여 패권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패권은 ‘패권국이 다른 국가에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집중 혹은 패권자원의 통제’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델스키(George Modelski), 골드스타인(Joshua Goldstein),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 커헤인(Robert O. Keohane),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나이(Joseph S. Nye, Jr.)가 있다.

한편 유형능력과 달리 무형능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형권력을 경성권력(Hard power)이라고 한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무형권력은 연성권력(Soft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권력에 초점을 맞춘 학자로는 나이(Joseph S. Nye, Jr.)를 들 수 있다. 그는 패권을 고려할 때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경성권력(Hard power)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과 같은 연성권력(Soft power)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패권 의지 측면에서 패권을 ‘패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에 부합되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다. 길핀(Robert Gilpin)은 패권을 “국제체제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한 국가의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 국가가 “상당히 많은 파워”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패권국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패권안정 이론에서 논의하는 패권적 지도력이 이에 해당한다. 바람직한 패권적 지도력이란

7) Charles F. Doran, *The Politics of Assimil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1971), pp. 20.

8)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116.

단순한 힘에 단극적인 집중점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하여 건설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 체제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도력이 행사되는 체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패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군사 및 경제적 우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패권체제에서 패권국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통제되어지는 필수규칙을 결정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⁹⁾

2. 패권결정요인

일반적으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광의의 국력이란 국가가 현재적 및 잠재적으로 보유하는 유형·무형의 제요소가 통합된 국가의 능력이며 협의의 국력이란 국가의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생존에 대한 내외로부터의 위협과 압력 및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이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들을 배제하는 한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군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협 또는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국가능력이 총합된 작용을 말한다.¹⁰⁾ 우선 국력을 나타내는 여러 학자들의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권력 측면의 가시적인 요소로는 인구수, 영토의 크기, 지리적 위치, 군사력, 국내총생산(GDP), 외환보유량 등이 있다. 연성권력 측면의 비가시적인 요소로는 교육의 질, 과학 기술 수

9) Bruce Russett, Harvey Starr, and David Kinsella,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00), pp.360-361.

10) 국방대학교 『안정보장이론(Ⅰ)』 (서울: 국방대학교 1996), pp.178.

준, 사회 문화 등 관념적인 측면을 의미한다.¹¹⁾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패권안정론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는데 국제평화와 같은 안보 영역에 있어서 뿐 아니라 무역이나 통화와 같은 안보 외적 영역에 있어서의 국제질서, 국제협력, 국제제도가 세계의 지도력 즉 패권국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패권안정론은 패권의 쇠퇴와 더불어 국제질서, 국제협력, 국제제도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갈등을 동반하기 쉽다고 본다.¹²⁾

Ⅲ.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1. 미국의 대외정책

탈냉전 시대 미국은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가 간의 강화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생존 및 안보'를 목표로 하는 외교안보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상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두 번째 축인 통상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탈냉전 이후 힘의 우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군사

11) 안운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안보", 『안보는 단』, (서울: 해병대전략연구소, 2007), pp.64

12)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2002), pp. 138-147참조

력에 대한 경제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통상 정책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부와 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국제경제체제의 개방화 및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통상정책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¹³⁾

2. 기존 안보 · 군사전략

1) 일방 · 단독주의 추구 전략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미국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특별하게 인자한 힘(Benevolent power)이라는 믿음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한다.¹⁴⁾ 그들은 미국을 호의적인 패권국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힘과 선행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외교의 목표를 적극적 개입을 통한 대테러(Counter terrorism) 및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의 실현과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의 구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이어 제3단계 대테러 전쟁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래의 봉쇄 및 억제정책에서 대미 대량살상무기 사용위험이 있는 적대국 및 테러조직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을 신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독트린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테러 전쟁 수행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13) 모종린, “글로벌 리더십과 통상전략”, 『국가전략의 대전환』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 104-105.

14)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00157120, Mar/Apr99, Vol. 78, Issue 2

대외정책 사항이며, 미국과의 우·적(友·敵) 관계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력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구분되게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안전, 미국의 경제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과 세계최강의 경제역량을 통한 참여와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비해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억제, 봉쇄, 집단안보에 의존하여 과거의 안보전략과 구분되는 공세적 군사개입, 선제공격, 불량국가 및 기타 적대세력에 대한 대확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확실한 미국적인 국제주의(A distinctly American internationalism)’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인간의 자유를 선호하는 힘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테러리스트들과 독재자들이 야기하는 위협을 격퇴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4월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非)보유국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로 공격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년마다 발표되는 NPR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 기초를 담은 종합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보복 공격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은 상대방의 도발에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었다.¹⁵⁾

2) 테러행위자의 확대해석과 양분법에 의한 세계관

9·11 테러이후 미국은 테러범 및 테러범 단체와 함께 테러 지원국가

15) 조선일보, 2010년 4월 7일자

도 테러 행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의 2001년 ‘악의 축’ 국정연설과 그 이후 미국 주요지도자들의 연설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불량국가(rogue states)’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악화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우선적으로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교체되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기독교 원리주의에 입각한 ‘나의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양분법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핵무기 독과점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중동정책의 교두보인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과해 왔고, 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국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량살상을 유발하는 절대무기의 확산은 인류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력과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 전략은 미국의 주요 안보위협인 ‘악의 축’ 국가들과 테러 세력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 안보와 새로운 안보를 동시에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안보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 및 집단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역지 및 테러 예방이 될 것이다.¹⁶⁾

미국이 주장하는 ‘선제공격론’ 혹은 ‘예방전쟁론’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적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당장은 위협이 아니라도 미래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지 모르니 어느 나라든 어느 누구든 미국이 지목하기만 하면 적이 될 수 있다. 9·11테러의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숨겨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은 훌륭한 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담 후세인을 악당이라고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미국인들 대부분이 이미 악당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⁷⁾

16)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2003 여름), pp. 374.

3) 1-4-2-1전략

미국은 1990년 이후 20여년간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서 승리하는 이론바 윈-윈(Win-Win)전략을 유지해 왔다. 이 전략은 중동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재래식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2010 QDR¹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전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하여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국방기획 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채택하여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양대전쟁 전략을 '1-4-2-1 계획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 '1'은 1개 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양대전쟁은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하여 미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다음의 과제들을 정식화하여 미군사력 운용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¹⁹⁾

4개 지역에 전진 배치되는 미군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이해를 지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2'와 '1'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또한 전진지역에 미군을 배치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포착하고 봉쇄함으로써 '1'의 본토방어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토방어를 위한 첫 번째 방어막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이 형성하는 것이며 가

17) 박성래,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스트라우스』 (서울 : 김영사, 2005), pp. 148-149.

18) 4개년국방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이후 2010년 현재까지 미국은 4차례(1997년, 2001년, 2006년, 2010년)에 걸쳐 발표했다.

19)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September 30, 2001), pp. 17-21.

능한 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²⁰⁾

3. 2010 『4개년국방검토(QDR)』의 신 군사전략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국방검토』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01년과 2006년 QDR의 경우 각각 ‘21세기 미군의 건설’과 ‘21세기 총체 전략의 발전’ 등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포함된 것에 비해 QDR 2010에는 전력 균형, 미군 및 가족 보호, 관계 강화, 국방 운영 개혁, 국방위기 경영 등 주로 현 상황을 반영한 것들로 절이 구성돼 있다.²¹⁾

2001년도 QDR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9·11 테러 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 미국은 미 본토 방위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여 군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²²⁾ 둘째, 핵심지역에서의 침략 및 강압에 대한 전진 억제이다. 셋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주요 전투작전²³⁾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제한된 소규모 우발작전 수행이다. 한편, 미국의 지속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미 국방부가 발표 2006년 2월에 발표된 『4개년국방검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네트워크 격멸이다. 둘째, 미국의 영토 밖에서부터의 미 본토 방위이다. 셋째, 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의 선택여건 조성이다. 선

20) U. S Department of Army, *United States Army Transformation Roadmap* 2003, Washington, D.C. November 1, 2003, pp. 6

21) 국방일보, 2010년 2월 8일자

22) 김창수 외, 『QDR 2001 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1), pp. 86.

23) Major Combat Operation(MCO) : 중심이 깊은 지역에서 적의 공격 능력을 제거, 유리한 군사적 여건을 확보, 적대 행위의 종식을 위해 수용 가능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을 말한다.(예 : 아프가니스탄 전쟁)

택적 기로에 선 국가 중 인도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러시아는 구 소련과 같은 위협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조한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군사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합동훈련 및 연습, 고위급 대화, 언어·문화적 능력 향상 등을 통한 협력증진과 GPR²⁴⁾을 통한 미군 투사여건 보장, 적대국으로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 넷째, 적대국가·단체들의 대량살상 무기 확보·사용 방지이다.

2010년 『4개년국방검토(QDR)』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본토의 방어를 우선시하며 둘째, 대반란활동과 안정 및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셋째,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속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넷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의 공격을 억제 및 제압하고 다섯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여섯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을 보장하는 것이다.²⁵⁾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WMD 기술을 평가절하 했지만 이번 고보서는 북한의 WMD기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중·단거리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하면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차출할 수가 있어

24)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 2003년 11월 25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성명에 의해 공식화된 전 세계적 규모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군사변혁(Transformation) 구현에 기반한 미군기지 재조정 계획을 말한다.

2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February 2010), pp. 2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군 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차출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의 차출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대북 억지력 감소와 주한 미군이 우리가 원치 않은 분쟁지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4.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과 한국과의 관계

탈냉전, 소련의 붕괴 등 일련의 구체적 사건이후 미국은 세계질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경쟁자가 없는 세계정상에 홀로선 지도국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냉전의 장기적 평화가 미소 양극체제에 기인한다면 현재의 평화는 미국중심의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미국과 중국의 지역 패권경쟁 관계 속에서 국가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은 중·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지속을 통한 북한 위협억제 및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외부 위협에 대한 안보전략 구현을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비대칭 전략 추구를 통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유지한 여러 가지의 안보적 자산들을 최대한 유지 활용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부정적인 상황 등이 존재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전쟁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유지와

26) 정형석,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미국의 패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집』 Vol. 27. 2002. 3. 345-360, pp.360

27)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평등한 SOFA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 지위 협정 혹은 한·미행정협정이 있다.

연합전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분제의 정착에 있어 한미동맹의 위상이나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북한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있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의 출현이 한·미동맹의 해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남북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미국과 오랫동안 쌓아왔던 동맹간 신뢰를 깨트릴 필요는 없다. 미국에게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이 한·미동맹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설득이 필요하다.²⁸⁾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평시에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가와의 분쟁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평시에는 한·미연합전력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존전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한·미연합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단 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함으로써 국력소진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IV. 한국 군사전략 방향

1. 한반도 주변 예상되는 위협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28) 김홍길, “패권전환기 미국의 동맹우선주의와 한반도 평화지도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집』, 2008. pp.74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은 정치·경제·군사 분야 등에서 세계 최강국들로서 전략 무기와 최첨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인과관계 등의 요인에 의한 각국의 이해 상충,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지역 패권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대로 장기적인 지역구도 예측이 곤란하며,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위협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 등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 현실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전략적 판단 또는 오판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에도 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역동적 협력과 대결의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많은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길목에 접어들 것이다. 첫째, 미·중 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불리하지 않게 행동하면서 양국사이를 ‘순항’ 할 것인가? 둘째, 자국의 독자적 외교안보정책을 견지하면서 양국이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강요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저항할 것인가? 셋째, 자국의 안보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양국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확보, 유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²⁹⁾

다음으로는 다양한 분쟁양상에 따른 주변국의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군사강국들의 세력다툼에 놓여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은 국가이익의 충돌, 영토분쟁, 민족갈등 등 많은

29) 최중철,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선택,” 『2000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한미안보연구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체, 2001. 10. 7), pp. 5.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G20정상회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환율문제는 경제문제를 초월해 국가간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5~10년 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중국에 어떤 리더십이 등장할 것인가에 불안해한다. 중국은 거대국가다. 여러 분야에서 거대국가로서 경제개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미국은 환영한다. 하지만 나라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국수주의나 제국주의자가 집권해 헤게모니 정권으로 변모해서 우리가 봐왔듯이 중국이 아시아, 베트남, 동남아시아, 타이완에서 헤게모니를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사이버 상에서 폐쇄적 태도를 표출한 것을 볼 때 중국의 국수적인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에 대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대처하고 있다. 즉각적인 긴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국주의적 지도자들이 집권한다면 중국은 과거사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받은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G20에서 고상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좀 더 평등한 G20에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만약 중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게 된다면 미국과 문제가 생길 것이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미국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없이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이나 일본을 지원할 것이다.³⁰⁾

2.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1) 절대 우위의 군사력 건설

1970년대에 미국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

30) 국방일보, 2010년 9월 11일자

트린(Nixon Doctrine)' 발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국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무기의 자체 생산능력 확보를 추진했다.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 방위의 아시아화를 규정했다면 박정희의 자주국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조속히 달성하려는 것이었다.³¹⁾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정부는 군사력강화의 일환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시행단계로서 미국 일변도의 군사정책에서 다변화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1974년 전력증강 사업인 '울곡사업'을 착수하였다. 1975년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정부는 효율적인 울곡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법(법률 제2768호)을 제정하기도 했다. 울곡사업이후 최신 전투장비는 물론 방위산업에 박차를 가해 군의 장비가 국산화되기 시작했다. 1974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18년간 전력증강 사업에 투자된 예산 규모는 총 24조 2,993억원으로 이중 차관원리금 상환액 2조 441억을 제외한 22조 2,554억원이 실투자비로 투자되었다.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1971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³²⁾ 및 군사위원회³³⁾를 운영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군사령부³⁴⁾가 창설되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차상급 의사결정기구인 군사위원회에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참여하게 됨으로서 군령분야의 정책결정에 국군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부로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2014년을 목표 년도로 추진되고 있다. 1970년대는 주로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개편작업을 했다. 1990년대는 국방태세 발전을 추구해

31)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pp. 144

32)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33)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34)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왔으며 2000년대는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선진 강군으로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경축사에어 언급하면서 시작된 자주국방에 대한 최근 논의는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오해가 되어 논란이 계속되다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자주국방’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논의를 불식시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 5월 20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자주국방’이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참여정부는 육·해·공군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통하여 정예 정부, 기술 군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³⁵⁾ 국방부는 북한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의 사기 복지 증진 및 교육훈련 강화, 병영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보전시설 확보, 탐색구조 임무 전환 장비 확보, K-9용 탄약 운반 장갑차 구입, 전자기상 관측 장비 확보, 생물독소 분석 식별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³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은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미래의 한미동맹관계 변화를 대비한 협력적 자주국방력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합한 협력적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력 건설의 기반으로 자주, 효율성, 적합성 등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자주성이란 적절한 전력규모 확충과 전

35) 2004년 5월 20일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회의록

36) 김태우, 『주한미군 잡아야 하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24

력구조의 균형을 통한 독자적 현대 전쟁 수행능력과 체제를 완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국방운영과 국방비의 투지비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적합성이란 한반도의 전략환경, 미래의 안보환경, 그리고 전략적 요구 등에 잘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³⁷⁾

2) 한·미동맹체제 강화

미래의 안보여건을 완벽하게 전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안보·국방차원에서는 하나의 전망보다는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비체제를 수립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부의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우리의 국익에 따라 재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안보전략 방향의 근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³⁸⁾

앞으로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은 갈등·불확실성의 격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안보 전략적인 선택 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유리한 주변 질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주변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즉, 주변 강대국들 간의 파워게임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 모두와 우호 선린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한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미·중·러 세 강대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군사와 안보문제에서 한국이 대미·대북 자주

37) 김희상, 『21세기 한국안보』 (서울 : 전광, 2000) pp. 271-272

38) 서주석,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 pp. 19.

권을 완전히 행사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미 양자관계 구도로 위기 해결을 도모하기 보다는 남·북·미 3자간 타협과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적 해결방법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핵 문제는 미국의 운명보다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자주적인 태도로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북·미간에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안정보장을 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는 동시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약속하고,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과 남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을 일괄 타결하는 군축 협상을 성사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합의를 정치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의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은 ‘동맹’을 포기하고 ‘자주’를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가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제까지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왔고, 오늘날에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며, 특히,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 안보 문제의 안정적 관리에 순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조화시키면서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안보 역학관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거부적 적극방위를 위한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 주변국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결코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할 수준의 첨단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주변국과의 국지전 이하 위협은 자위적 능력으로 능히 대처하고, 전면전 위협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전면전을 예방·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안보 철학과 기본 틀은 한·미동맹과 조화를

가운데 추구 되어야 할 것이다.

3)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추진

향후 세계체제와 질서가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관계의 역동적 변화는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2020년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유럽중심이 아니라 아시아의 세계가 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갈등 및 주변국 반대 등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본 한국의 장기 안보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의 안보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이므로 안보전략은 최우선 순위의 국가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³⁹⁾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의 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한다. 넷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사이를 차지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전략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⁴⁰⁾

이외에도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하고 그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국방, 외교, 경제 등을 망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기조가 유지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안보전략은 세계적 차원보다는 지역차원에서 구상되

39)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pp. 162.

40) 윤미숙, “미중갈등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5년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pp. 39-41.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중간의 심각한 갈등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면서 중국을 공격적이지 않고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미국이 기존의 지역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미래 군사전략 기본 목표 설정

세계 각국은 현재 지속적인 군사혁신⁴¹⁾을 통하여 군 병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기존의 군 조직을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군사전략의 기본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추진과정의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간단한 작업일 수 있다. 즉, 군사전략의 기본적 목표는 군사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선에서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 등 우리의 상대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내용 또한 지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⁴²⁾

한국의 경우 군사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의 전쟁도발 의도를 사전에 억제하여 침략을 예방하는 것이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를 방어하고 전쟁의 흐름을 공세로 전환하여 차제에 북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수복하는 데 두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군사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로 전제되어야 할 요소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국제적 지원 세력을 가능한 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과 그로부터 제기될 군사적 위협 요인들에 대한 식별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미래 군사전략 추진 방향을

41)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42) 이규열 외,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안보전략』, pp. 193.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주도형 전쟁수행 체제 지향이다. 이는 향후 전략 환경이 보다 독자적인 전략적 입장 및 확장된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독자적인 대북 군사억제력의 확보이다. 이는 한국 주도형의 전쟁수행 체제 구축에 포괄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나 실질적으로 보다 방대한 규모의 작업이 소요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대칭 전략을 통한 전승 추구이다. 이는 전략환경과 군사과학기술 및 전쟁 수행방법을 고려 상대방과 비대칭적 접근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즉,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이용하여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리적 전장 환경은 국경선이 짧고 국토가 협소하며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토가 해안에 접해있다. 또한 인구가 도시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전장화될 경우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장 환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 비대칭 전략 추구

합참에서 발간한 합동군사용어사전은 ‘비대칭작전(Asymmetric operations)’이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수단, 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작전, 즉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위주 작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기술적으로 아군보다 열세한 적과 싸울 때는 기술위주로 싸우는 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³⁾

43)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8

이러한 비대칭전략의 가치와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북 전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형화된 군사력 건설을 탈피해야 한다.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주변열강과 같은 잠재적인 위협(Potential threats)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능력에 기초한 비대칭 전략(Capability-based asymmetric Strategy)’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⁴⁴⁾

둘째, 우리는 주변 강대국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강대국의 무기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방할 경우, 약소국의 입장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한반도의 국가전략 하에 주변열강과 차별화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⁴⁵⁾

셋째, 21세기 정보화 시대 및 비선형의 전장에 부합하는 비대칭의 군사조직(Asymmetric military organizations)으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⁴⁶⁾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대칭적인 사고에 젖어, 마치 ‘벽돌을 쌓듯이’ 최하급제대에서부터 군 최고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인 조직구조(hierarchical organization)를 만드는데 집중하여 왔다. 이제 이러한 대칭적인 벽돌쌓기와 같은 계층적인 조직은 더 이상 비대칭적인 위협에 적합하지 않다.⁴⁷⁾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군 조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들을 상황에 따라 기능적

44) 권태영·정춘일, 『미국의 군사혁신 발전추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6), pp. 8.

45) 과학기술처,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1995, pp. 4.

46) Major David W. Shin, *Future War : Back to Basics*, *Military Review*(sep-oct1999), pp. 63-69.

47) Arsenio T. Gurnahad II, *The Profession of Arms in the Information Age*, *JFQ*(Spring 1997), pp. 16-17.

으로 통합하는 비대칭적이고 비계층적인 다기능 조직(Multi-functional organization)이 되어야 한다.⁴⁸⁾

넷째, 21세기 비선형의 전장에서 합동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전문군사교육체계를 군사혁신 차원에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조건에 의한 인력획득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전쟁에 부합되는 다양한 인재들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 및 과학화 군에 부합되는 군인으로서의 가치와 용기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한 유능한 인재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패권이론 차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여러 국가 패권의 흥망성쇠의 역사였고, 패권의 변화와 함께 국제질서도 변화해 왔다. 탈냉전 시대 미국 역시 기존의 패권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에서 미국 패권전략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다양한 안보 위협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거시적이며, 체계적인 한국의 안보·군사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이 현재까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고, 수많은 문화, 민족, 인종과 종교를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패권이론의 정당화 이념인 미국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세계로 확산되었다. 탈냉전 시대 미국은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48) Robert R. Leonard, *The Principle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Novato, CA:Presidio Press, 1998), pp. 120-122.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질서의 안정과 불안정을 전적으로 패권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패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가 안보전략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패권의 개념과 패권의 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안보·군사전략 방향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각종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따라 약간 상이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한국의 안보전략 추구 방향은 기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만 전환기의 안보환경 하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
본부, 1998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
의 상임위원회, 2004)
- 국방대학교, 『안정보장이론(I)』(서울: 국방대학교 1996)
- 과학기술처,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서울: 과학기술
처, 1995)
- 권태영·정춘일, 『미국의 군사혁신 발전추세』, (서울: 한국국방연구
원, 1996)
- 김창수 외, 『QDR 2001 분석』(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 김태우, 『주한미군 잡아야 하나』(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 김희상, 『21세기 한국안보』(서울: 전광, 2000)
- 김홍길, “패권전환기 미국의 동맹우선주의와 한반도 평화지도력”, 『전
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집』, 2008.
- 모종린, “글로벌 리더십과 통상전략”, 『국가전략의 대전환』(서울: 삼성
경제연구소, 2001)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서울: 법문사, 2002)
- 박성래,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스트라우스』(서울: 김영사,
2005)
- 안운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과 한국안보”, 『안
보논단』,(서울; 해병대전략연구소, 2007)
- 윤미숙, “미중갈등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5년 『국방대
학교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정
치학회보』 제37집 2호(2003여름)

- 정항석, 『미국패권의 이해』 (서울: 평민사, 2001)
-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서울: 국방대학교, 2002)
- 최종철,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선택,” 『2000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한미안보연구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체, 2001. 10. 7)
- 국방일보, 2010년 9월 11일자
- 국방일보, 2010년 2월 8일자
- 조선일보, 2010년 4월 7일자
- 중앙일보, 2010년 4월 20일자
- 중앙일보, 2010년 4월 10일자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Washington, D.C. September 30, 2001)
- United States Army Transformation Roadmap 2003, Department of Army, November 1, 2003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Washington, D.C. February 2010)
- Arsenio T. Gurnahad II, *The Profession of Arms in the Information Age*, JFQ(Spring 1997)
- Bruce Russet, Harvey Starr, and David Kinsella,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New York: Bedford/ST.Martin's, 2000)
- Charles F. Doran, *The Politics of Assimilation* (Baltimore: Johnes Hopkins, 1971)
- Major David W. Shin, Future War : Back to Basics, *Military Review*(sep-oct1999)
-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군사학연구 통권 제8호

Robert R. Leonard, *The Principle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Novato, CA:Presidio Press, 1998)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00157120, Mar/Apr99, Vol. 78, Issue 2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s National Defense Strategy
: Focused on the Hegemony Strategy of U.S.A.

Kim, Sung-Woo*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 Professor, The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of Yeung Nam College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Key words: hegemony strategy, strategic environment, alliance, military power